

천재의 불꽃을 피우라

| 존 베인 |

삶의 중심이 육체와 감정, 정신에 가 있는 사람은 자동화기계일 뿐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 세 부류의 인간을 넘어 천재성의 불꽃을 피우라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인간이 처한 문제

실제에 적용할 수 없는 지식은 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은비학 지식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보통 은비학 관련 글들에서 쓰여지는 복잡한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한 용어들을 해독하려면 박학다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유사한 책들에서, 진리를 공개할 경우 생기는 위험성 때문에 일부러 이를 숨기고 있음을 알고 있다.

먼 옛날 은비학은 매우 힘든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 시험에 합격한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교육받았지만, 물질론과 혼돈이 가득 차 있는 오늘날에는 최고의 깨달음을 탐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 심리적,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되고 영감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지만,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 알지 못하고 헛되이 하늘만 쳐다본다. 그들에게 은비학을 말하면, 그들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심하면서 비웃는다. 나는 그들에게, 우선은 이 책에 쓰여진 조언을 실제에 적용해 보고, 그 후에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한다.

천여 년 전에 누군가가 인간은 선(線)을 통해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자가 나올 것이라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탈 것을 타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데 그치지 않고, 미친 사람이라 여겼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텔레파시, 천리안 혹은 여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은비학의 모든 놀라운 힘들이 일반화되어, 일상생활에 쓰여질 것이다. 이는 단지 진보의 문제일 뿐이다. 의식과 이성을 습득하는 데는 다소 긴 시간이 걸려야 한다. 시간의 상대성을 염두에 둔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인간의 의식을 확장해서 의식의 발달을 놀랄 정도로 촉진할 수 있는 학문도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학문은 비밀에 붙여졌으며, 현재도 비밀에 붙여져 있다. 이는 인간이 도덕적 혹은 영적 완성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친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덕을 쌓은 사람은 영적 완성을 이룬 것이기에 이 지식을 전수 받을 자격이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전수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시대의 기괴한 물질론에서 생겨난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사람들은 물질적 부(富)에서 행복을 찾는다. 부와 행운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얻은 후에는 실증과 실망만이 남는다. 소수의 사람만이 본래부터 인간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자신의 영(靈)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 받는다면, 물질적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젊은이들은 삶을 가볍게 여기면서 오늘 현재만을 생각한다. 인간은 노인이 되어서야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갔으며, 목적했던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죽은 후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라고 자문한다.

유감스럽게도(혹은,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지는 않으며, 50~60여 년을 살아야 비로소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인생 경험이 쌓인다. 육체가 노쇠해지고 해체되기 시작할 때에

야 삶의 지혜와 기술이 생기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한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음이 도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우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며, 우리가 마침내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다시 목숨을 뺏어 가는지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이가 살아가면서 생긴 일들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노인이 되어서도 젊은이와 같이 무지하거나 젊은이보다 더 무지하다.

세상에는 문명화된 인간이 달성한 문화수준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학교와 센터, 대학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학문 중 가장 필요하고도 어려운 학문인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는 어디에도 없다.

삶의 최종 결과물은 단순히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인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 우연의 결과이다.

정상적인 지적,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엄청난 미지(未知), 영적 공백, 혐오, 이기심, 무지, 여타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서도, 위의 모든 모순들로 인해 정신이 상이 되지 않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다.

인간의 문제에 초연한 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기 위해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은 성공을 거둔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결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불변하고 영원한 법칙이 아닌, 개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의 인생관을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구식이라고 간주하게 되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다양한 삶의 상황에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심리를 적응시키려 노력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정한 심리현상들을 제어하지는 못한다.

마음의 비밀을 전수 받은 심리학자라면 교육계에 기여하면서,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젊은이에게는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감정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 젊은이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올바른 마음’이라면 피할 수 있는 실수를 한다. 나는 여기서 ‘올바른 마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강박관념으로 악화되면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도가 낮아지고 사고력이 상실되어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종교에서 위안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것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종교 신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종교교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성과 지식, 원인 탐구의 길을 통해 해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은비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도움을 준다. 만약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편견 없는 탐구에 정진한다면, 우리의 감각과 두뇌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의 숨겨진 원인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삶의 기술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이는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다.

인간은 허약하다. 인간에게는 의지력, 지조, 절조, 의식이 부족하

다. 수많은 욕망, 명예심, 혐오, 이기심, 허영심, 걱정 등이 숭고한 목적의 달성을 가로막으면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을 만큼, 인간은 허약하다.

위의 모든 심리상태는 영(靈)을 가두는 감옥이 되며, 영은 육체에 머물거는 하지만, 매개체인 육체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 희망, 능력을 표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완벽한 삶을 영유하지 못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신으로부터 생겨난 영은 이제, 영으로 하여금 영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바와 다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흥포하고, 야수적이고, 잔인한 물질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영은 태생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인간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이제, 육체가 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영이 육체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질적 만족, 예를 들어 술, 음식, 각종 관능적 쾌락을 남용하는 것은 숭고한 본질의 영에게 엄청난 내적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욕망을 곧장 충족시키고자 하는 습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몇몇은 인간 최고의 행복이 영적으로 빈곤할지라도 모든 물질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탁월한 영적 감수성을 지녔으며 논리적이고 정중할지라도, 은행계좌에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화려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곤 한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온 세상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모든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 그들은 소위 백만장자 귀족계급을 형성하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4차원이라고 부르는, 영적 혹은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자못 흥미롭다. 그곳에는 쇠덩이이던 자신의 혼을 황금

의 혼으로 변이시킬 수 있는, 즉 자신의 모든 결합과 욕구를 극복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귀족계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에너지 차원에서는, 멋지게 차려 입고 화려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위풍당당한 사업가도 끔찍한 악귀들이 어깨에 앉아 있는 거지로 보일 수 있다. 이 악귀들은 그가 소유했고, 그를 부의 노예로 만들었던 물건들이다. 그가 그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그를 소유하는 것이다. 에너지 차원에서는 겸손한 청소부도 아름다운 순백색 옷을 입은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삶은 신이라는 감독이 부여한 자신의 역할에 맞는 탈을 쓴 수백만 명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대한 연극이다. 연극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즉 실제 삶의 경우 각자는 많은 역을 수행하며,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의복과 탈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상을 심어 주고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역을 수행해야 한다. 인간이 오랫동안 이 역들을 수행하면, 그 역할이 심리의 한 부분이 되면서, 현실과 혼동하기 시작한다.

이 탈들은 인간이 현실을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남기도록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역할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만화경 같은 탈들 속에서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배우가 다른 배우나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역만을 수행하려고 하는 연극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무대와 현실이 뒤섞여버린다. 모든 인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안에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 고통, 질병, 죽음의 공포 등과 홀로 마주앉아 있게 된다.

인간의 이와 같은 사유왜곡(思惟歪曲)은 사람들 간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몰이해를 야기하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감정적 혹은 정신적 여러 형태로 영향을 주어 일정한 결정을 하게끔 하는 외부의 사건들에 좌우된다.

“자아” 혹은 영이 진정으로 발현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왜냐하면 영의 발현은 높은 수준의 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외적인 압력, 혹은 과거 모든 체험의 결과인 무의식에 기록된 진동파의 상태에 따라 반응한다.

은비학을 탐구하는 것은 자신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와 가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실제를 영, 가상을 개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후로는 개성을 인간이 부모로부터 계승한 것, 교육을 통해 얻은 것, 환경에서 받은 것,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신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모든 것으로 보겠다. 인간의 개성은 영의 유출을 통해 이루어진 자신의 본질에 반대되는 것이다.

위의 언급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나는 이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기계가 자신의 의견을 가지거나 무엇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기계의 의식, 의지 혹은 기계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학자들에 의해 창조된 현대의 로봇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인간을 그대로 모방해 놓은 것이다.

이 로봇들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여러 도식의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 각각의 반응은 해당 도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로봇이 비록 내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합할 수

는 있을지라도, “스스로 생각”, 즉 사전에 기록되지 않은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이러한 로봇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내장되어 있는 도식의 조합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비객관적인 것이다. 이는 단지 다양한 상황에 의해 인간의 정신에 기록된 도식일 뿐이다.

은비학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잠”이라고 한다. 즉 인간은 서로 겹치는 여러 도식들을 통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모든 육체적 쾌락은 이 잠이 더욱 깊어지도록 한다.

그 때문에 의식 성장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스스로 단식, 공핍, 고통을 감내하며, 엄격한 규율에 몸을 맡긴다.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혼수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 육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잠든 상태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자신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이에 대해 말해주면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깨어있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잠을 잔다고 할 수 있는가?”

수면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보로 향하는 모든 길을 막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과 투쟁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면 상태는 철저한 자기관찰과 자기분석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쾌락과 고통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할 것이다. 어떠한 육체적 쾌락도 수면을 촉진한다. 하지만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은 인간을 각성시켜 그로부터 잠을 쫓아낸다.

완전히 각성한 사람의 성장에는 고통이 필요하지 않다.

의식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의 의식

을 관심이 가는 모든 것과 동일시하면서 그것들에 투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보다 더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인간이 어떤 동인(動因)과 동일화되는 순간, 그는 잠이 들어 무의식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히 깨어있을 수 있을까?

“자아” 혹은 영은 두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감각의 거미집에 휘감긴 채 살고 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엄청난 양의 인상을 받아들인다. 상상력은 하루 내내 한 순간도 실패 없이 매우 빠르게 활동한다. 이 모든 감각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정신을 연구해보면, 각각의 의식 성장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에는 삶의 중심이 육체에만 맞추어져 있고, 본능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인간이 있다. 또한 삶의 정신적 중심이 심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만 살아간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는 정신적 중심을 두뇌에 두고 있는 지성인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력을 믿으며, 모든 것을 지적 관점에서 다룬다.

일반 사람들은 이 셋 중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데, 그들 모두는 기계 인간, 혹은 자동화 기계일 뿐이다.

이 세 부류의 인간들 위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수준의 인간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천재의 불꽃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위로 올라가서 신의 아들 혹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혹은 부모 인하여 귀족계급에 속하게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수준은 물질적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은 다만 의지력, 결단력, 의식, 자유 등 일반 사람들이 상상으로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수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선택된 사람들(“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의 의식수준을 알기 위해, 여기에 그들에 관한 간단한 분류표를 제시하겠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자. 출생 시에는 위의 세 부류 중 하나에 속해 있었지만, 은비학 도장에서 자신을 성장시킴으로써 그 부류로부터 올라선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자아”, 혹은 다소 안정된 정신의 중심을 깨닫고,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에 의해 달성된 것은 아직 확고하지 않으며, 그에게 체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재차 퇴보하여 원점인 잠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다 높은 수준에는 정신적 결정화(結晶化)에 도달한, 즉 자신의 혼을 ‘통합된 하나’에 통합시키고 이를 특정한 방향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화가 틀린 방향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어느 순간엔가 다시 돌아가서 이미 결정화된 것을 녹여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성장하거나 혹은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돌아가서 녹여버려야만, 그가 희망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결정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고의 단계에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최대한의 진화를 이룸으로써 의지력, 의식, 불사, 물질에 대한 권능 등을 영원히 얻게 된 사람이 있다.

인간의 은비학적 성장은 혼에 집중되어 있다. 즉 처음에는 혼으로부터 모든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그 후에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한편, “자아”와 의지의 제어 하에 혼의 모든 흐름들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혼을 분석해 보면, 혼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저런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숨겨진 동인(動因)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내부에는 인간이라는 기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한 힘, 즉 콤플렉스, 억제, 부정 혹은 불필요한 감정, 생각 등이 있다.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후에 육체에 드러나는 것은 모두 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인간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의 혼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인간이 노약하게 되는 것은, 그의 혼이 노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행”이 겹치고 삶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혼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운하게 만드는 원인은 우리의 정신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한계 및 실수 등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 부정적 힘도 혼을 통하여 발현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힘들이 우세한가에 따라 매일 우리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춘다.

우리가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침울하고, 두려울 때는 우리의 안에 소위 파괴적인 힘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운이 좋다면, 이는 단지 그가 자신의 의지, 감정, 상상 등을 활용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건설적인 힘과 통합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 강력한 힘의 실제 사용에 대하여 조언하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영(靈)과 물(物)이 결합한 결과 발생하는 일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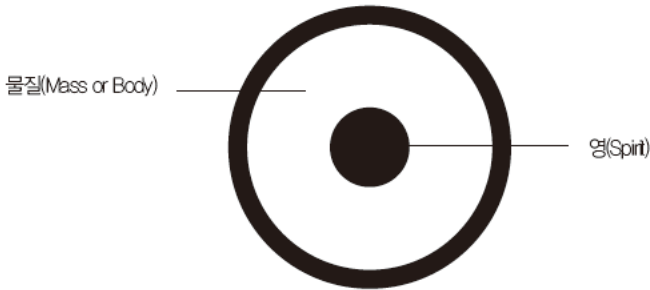


그림 1.

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겠다.

인간이 '동물적 육체에 깃든 영'임을 기억한다면, 인간 각자에게는 “자아”와 육체 혹은 물(物) 간에 영원한 갈등이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육체는 영의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자신을 자신의 육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영이 물질계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입는” 물적 형태에 불과하다. 영과 육체는 동일한 에너지, 즉 정신의 양극이므로, 육체가 영에게 봉사하도록 육체를 수양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삶 자체가 진짜 감옥이 된다. 대다수의 경우, 영이 육체에 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에너지를 물적 쾌락에 빼앗기고 있다. 초의식과 초지력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인 영이 의식도 없고 가공되지도 않은 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 갈등, 모순, 병, 고통이 비롯된다.

은비학은 의식과 지력을 지니게 하는 학문인 동시에, 영이 자신의 힘과 지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물을 수양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과의 진정한 결합이고, 자기 고유의 영과의 결합이

며,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어떠한 영적 훈련도 이러한 결합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사이비이거나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 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기고 수양을 완수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많은 유사 은비학자들은 자신들이 우주적 의식 혹은 신과의 결합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우주적 의식에 도달하는 데 절대 필요한 자신들의 의식조차 성장시키지 못했음을 증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육체에 갇들어 산다. 따라서 자신이 물질계에서 위치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먼저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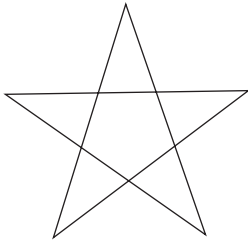
팔을 뻗고 서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오각별 혹은 오각형은 은비학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 별은 의식과 영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을 상징한다.

물질을 섬기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데, 이것은 뒤집어진 별로 상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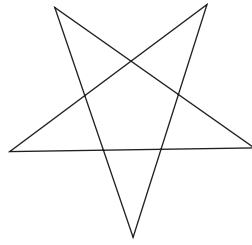
오각형의 인간은 영적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한다. 물질적으로는 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거의 유사할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추악함, 혐오, 공포, 죽음, 고통, 파괴가 없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산다.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진 기계인 육체에 복종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은비학자는 교통수단인 자신의 육체를 의식적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은 진정한 학자이다.

은비학자는 이 환상적인 교통수단인 육체를 대규모 발전소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자신의 희망대로 조종한다. 두뇌가 지나치게 빨리



은비학적 오각형



은비학을 모르는 사람의 오각형

그림 2

활동하는 경우에는 정신회로를 단절하여 자신의 두뇌가 활동을 멈추도록 한다. 만약 여타의 지적 혹은 사회적 영역에 속한 일반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성을 바꾸고자 하면, 그의 진동파가 자신이 행동하고자 하는 영역의 진동파에 맞추어진다. 간이나 장이 아플 경우, 그는 아픈 기관에 생명력을 충족시키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에너지를 그 기관에 불어넣는다.

물론 이러한 발전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비학 탐구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낙담하곤 한다.

물질에 대한 완벽하고 전적인 지배가 가능하게 된 은비학 전수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육신을 다시 젊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일반인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오래 살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고 에너지이다. 우주는 정신적인 것이다”라는 은비학의 원리를 상기해보자.

이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위대한 열쇠이다.

이 원리는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 원리를 깊이 고찰할 때에만 비로소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는

모든 곤란의 원인은 우리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상태를 바꾼다면 그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마음’임을 깨닫는다면, 육체도 ‘일정한 진동을 멈춘 채 굳어 있는 정신적 에너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뇌, 간, 심장도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통하여 작동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이다.

은비학 전수자는 엄격한 자기수양을 통해 정신적 혹은 육체 전체의 원자적 물질을 지배하고, 정신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에 작용함으로써 육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육체의 균형 교란, 즉 질병에 대해 분석해보자.

의학의 기능은 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에서 유독한 열매를 제거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 질병은 이 나무의 열매이며, 이 나무는 인간의 부정적 정신 상태에서부터 자양분과 생명력을 얻는다.

어떠한 질병도, 심지어 다리 골절 같은 육체적인 상처까지도, 혼으로부터 기인한다.

어떠한 것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항상 혼의 진동에서 찾아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혼에 장기간 자리 잡고 있는 파괴적인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서 기인한다. 이 부정적 상태들은 본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기장 덩어리를 발생시킨다. 이 전자기장 덩어리들 중 하나가 부정적인 상태의 중복을 통해 큰 힘을 갖게 될 때, 일정한 질병의 형태로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을 전통적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질병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뿌리는 혼에 계속 남아 있으며, 뿌리에 자양분과 생명력을 제공하는 부정적 상태가 재개되면 그 나무는 다시금 열매를 맺게 된다.

또한 생명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저항력을 완전히 파괴한 매우 심각한 우울증이나 히스테리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파괴적 진동파가 외부로부터 혼에 침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오라(aura)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발산하는 전자기장으로, 이질적인 진동파의 침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 방패가 사라질 때,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대기에서 활동하는 무수히 많은 진동파에 지배당하게 된다.(끝) 

- 이 글은 《장미십자회의 비전과학》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존 베인(John Baines) | 칠레 국적으로 본명은 다리오 살라스 솜머(Dario Salas Sommer), 존 베인은 필명이다. 저명한 교육자인 다리오 살라스 디아즈(Dario Salas Diaz)의 손자이다.

40년전 칠레 샌디에고에 은비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의 첫 책 《Los Brujos Hablan》이 “The Secret Science(비전과학)”라는 영문명으로 번역되어 서구에 소개되었다.

1988년부터 뉴욕 작가연합(The Authors Guild, Inc., New York) 회원이며, 영국에서 출간된 1999/2000년 국제 작가 명부인 《Who Is Who》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고도의 인간 교육 개발 증진을 위한 비영리 기구로, 러시아에 지부를 둔 ‘뉴욕 다리오 살라스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이사이다. 그 외에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 소재한 ‘Fundacion Bolibariana Latinoamericana(Latin American Bolivarian Foundation)’의 창립자이며, 이 기구 역시 라틴 아메리카의 인간교육과 문화 개발을 위한 기구로서 최상의 도덕과 영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존 베인 연구소를 창립했는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성취하기 위한 은비학적 가르침을 창출하였으며, 이 연구소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칠레와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지부가 있다. 현재 존 베인은 매주 컨퍼런스를 주재하고 있으며, 은비학 연구소와 존 베인 연구소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